주일예배 Sunday Worship

• 예배시간: 오전 10시 • 사회/설교: 서일원 목사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양 ..... 다같이
1. 빈 들에 마른 풀같이
2. 그 사랑(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3. 좋으신 하나님

기 도 ..... 다같이
① 질리나한인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하소서.
② 조별모임을 통해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③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하소서.
④ 가정 안에 사랑과 격려, 용서와 오래참음이 풍성하게 하소서.
⑤ 슬로바키아 내 개신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⑥ 유럽 내 사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성경봉독 ..... 서일원 목사
시편 51편 13-15절 (구약 p.839)

설 교 ..... 설교자
"예배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6)"

헌 금 ..... 다같이
"예배자(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광 고 ..... 사회자

축 도 ..... 서일원 목사

수요예배 Wendsday Worship | 수요일 오후 7:00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잠정 중단합니다.

목회자 코너 Pastoral column

열린 귀, 열린 마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오래 전에 「배려」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배려의 첫 단계는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해주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마음 문을 닫아 놓고 사는 사람에게는 한 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닫힌 마음의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농부가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상당한 낭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씨앗을 낭비하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씨앗을 뿌리지만 이 씨앗들 중에서 정작 열매를 맺는 비율은 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듣는다'는 말을 7번이나 되풀이합니다. 그만큼 듣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먼저 귀담아 들어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 각성이 있고,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곳이 광야든지, 길이든지, 집이든지, 산이든지, 바닷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르치시고 보여 주셨지만 놀랍게도 그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길가(마 13:4)와 돌밭(마 13:5)과 가시떨기 위(마 13:7)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는 마음이 사탄의 방해와 마음의 완악함과 세상살이의 갖가지 염려들로 가득한 좋지 못한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에 반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마 11:25)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결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마 13:11)은 자연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말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나' 같은 자가 듣고 깨달아 믿게 된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바쁜 일손을 잠시 접고 성경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제목 Prayer

Ⅰ. 공통기도제목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휴가기간 동안 더욱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Michalovce 교회 - Marek Jurčo 목사

Ⅱ. 주간기도제목

일	주제	기 도 제 목
2일 (주일)	예배	1.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더욱 겸손히 살게 하소서.
3일 (월)	코로나 19	1.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지켜 주소서. 2.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소서.
4일 (화)	휴가	1. 육신과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되게 하소서. 2.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소서.
5일 (수)	유럽 복음화	1. 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2. 무슬림 사역을 하는 단체들과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6일 (목)	슬로박	1.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게 하소서. 2.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소서.
7일 (금)	제직	1. 교회 내 여러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2. 직장, 가정,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님을 깨닫게 하소서.
8일 (토)	교회	1. 사택 구입을 위한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2. 교인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살피시고 인도하소서.

큐티나눔말씀 Word for Quiet Time

날짜(요일)	본문
8월 2일(주일)	사 17장 1 - 14절
8월 3일(월)	사 18장 1 - 7절
8월 4일(화)	사 19장 1 - 15절
8월 5일(수)	사 19장 16 - 25절
8월 6일(목)	사 20장 1 - 6절
8월 7일(금)	사 21장 1 - 17절
8월 8일(토)	사 22장 1 - 14절

◇ 주일모임안내

모 임	안 내
오전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학생회	7,8월 방학
어린이 주일학교	
마더와이즈	
오후 성경공부	

◇ 주중모임안내

모 임	안 내
큐티나눔모임	7,8월 방학
수요기도회	코로나19 관련 잠정 중단

광고 Announcement

•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를 위한 예방수칙**
예방수칙 준수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① 손소독, ② 마스크 착용.

• **휴가 복귀 후 당부사항**
휴가 복귀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휴가 기간 중 예배 시간 조정**
휴가 기간 중 예배 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기간: 7월 26일 ~ 8월 9일
시간: 주일 오전 10시
※ 이 기간 중 2부 예배는 없습니다.

• **기도 생활 권면**
각조 조장님들을 통해 전달해 드린 7월 예배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제직 세미나**
일시: 8월 15일(토) 오전 10시
강사: 이창순 목사(서울 서부침례교회 담임)
-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신학대학원(M.Div)
-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전공(Th.M)
-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 줌(zoom)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환영합니다 ♥

☺ 구현수 님

8월 헌금위원	
1부 예배	김택근, 박종석
2부 예배	김영수, 정세영

질리나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CB in Zilina

2020년 8월 2일
(31주)

KÓREJSKÝ ZBOR CIRKVI BRATSKE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시다.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시다.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서일원 제직: 김영수, 김은혜, 박시몬, 박영환, 서제원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